

조희성 구세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 “한국에 태풍 절대 못 불어온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세주의 약속이 지켜졌다. 구세주는 1981년 한국 땅에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38년 전의 약속이 올해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구세주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런 약속을 천명할 수 있으며, 이 약속을 보장하신 후에도 지킬 수 있겠는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권능과 권세는 구세주의 능력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이런 기적을 역사상 행했었던가 말이다.



다나스는 처음에는 중부지방(적색 그림)을 나중에는 남부지방(우측그림)을 관통할 거라고 예보했다



주께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엄청난 열을 발산시켜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한다는 물리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진하는 힘이 약화되어 태풍이 소멸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구세주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유익하게 할 것인가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2개의 태풍이 한국으로 불어왔는데 6월 태풍 브라베룬은 대한해협으로 지나갔으며, 9월의 태풍 솔릭은 바람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죽어서 완전히 허풍이 되었다. (태풍 태풍 하더니 허풍만 친 기상청"이라는 제하의 기사 그림 참조), 당시 태풍 솔릭은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준 효태풍이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부모국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구세주를 배출한 한국은 전세계에서 막강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구세주는 예언하셨다.*

태풍 관통 예상 빙하기

사실 이삼일 전만 해도 태풍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매스컴은 앞 다투어 보도했다.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약화되어 신안군 도서 인근에서 소멸되었다. 한국일보 7.20일자 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20일 한반도 근처 해상에 도착하자마자 소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낮 12쯤 진도 서쪽 약 50km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사실상 소멸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상에서 발생

한 지 나흘 만이다. 당초 다나스는 남부지방을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간 뒤 소멸할 것으로 예보됐으나 강도가 급격히 약해지며 20일 오후 태풍으로서 생명을 다했다.”

여기서 다나스 태풍 보도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기상청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림 1 참조). 그 다음 예보는 점점 태풍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더니 목포 부근을 지난 것으로 예상했다(그림 2 참조). 그 다음 19일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쪽 25도 이하의 저수온 해역 통과로 인한 열적

에너지 감소, 제주도과 한반도 접근에 따른 지면 마찰 등으로 내륙에 상륙하면 급격히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내륙에 상륙하기 전에 이미 태풍에서 허풍으로 바뀐 것이다.

구세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구세주께서 태풍을 막는 방법은 다양하다. 마치 럭비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상대 선수들을 밀 듯이 구세주의 수많은 분신들이 불어오는 태풍의 앞을 가로막아 스톱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튕는 방법이 있다. 이때 구세주의 분신은 엄청난 거인의 모습이다. 다른 방법은 구세

1981년부터 태풍 전부 막았다 / 작년에는 브라베룬·솔릭 막았다

2018. 6월 불어왔던 브라베룬을 완전히 한반도를 비껴가게 밀어부치며 구세주 조희성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내용의 승리신문 기사

2018. 9월 불어왔던 솔릭을 허풍으로 만든 구세주 조희성님의 능력을 확인해 준 승리신문기사

외당과 암각화에 새겨진 고대 문자

대동강변 출토 외당 문자는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다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약 32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와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들은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壇(天祭壇)을 쌓았고, 그 제단의 출입문 상단 지붕에 쌓은 기와에 원형 외당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형 수막새에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된 지 알 수 없었던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또한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와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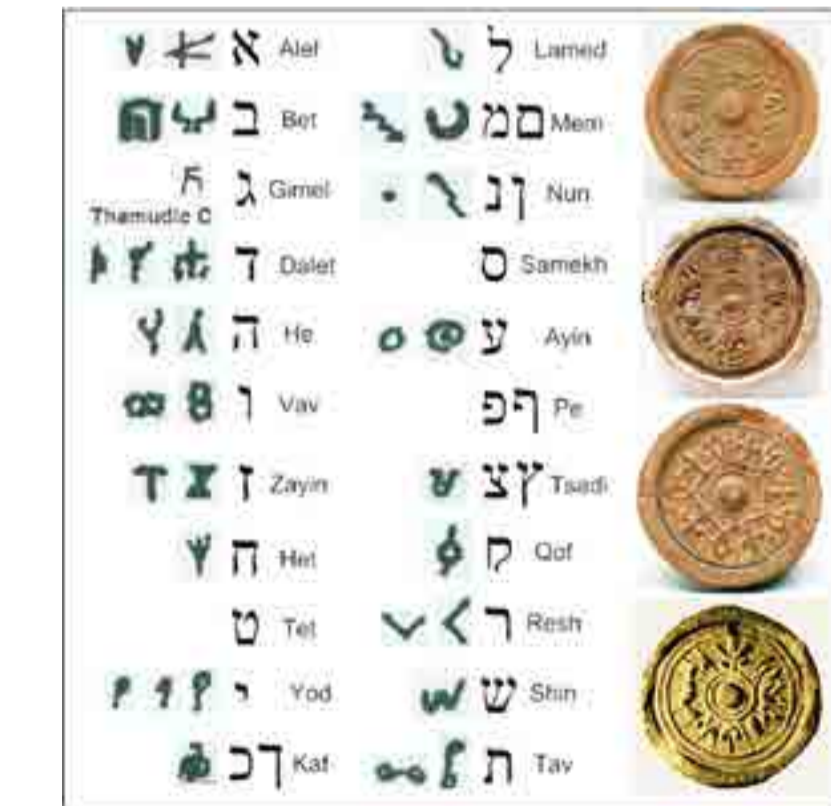
그런데 금세기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을 건네받은 곳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성

지순례 코스 중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나산(Mt. Sinai)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Mt. Lawz)이 진짜 시나산(Mt. Sinai)임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라오즈산(Mt. Lawz: 아몬드산 Mt. Almond) 주변의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일찍이 원시타무딕이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원시타무딕(Proto-Thamudic) 문자가 모세 시대(the period of Moses)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직접 새긴 홍해기적의 암각화에 고조선 외당 문양과 동일한 문자로 기록

한편 미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와 동일한 문자의 문양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의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



대동강변에 출토된 고조선시대 외당에 새겨진 문양이 이스라엘의 모세 시대와 사사시대에 사용된 원시히브리어

네게브(Old Negev)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해리스 박사의 올드네게브 문자표를 이용하여 4개의 고조선 외당(위의 사진 참조)에 새겨진 원시 히브리어를 해독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시나산 주변에서 발견된 홍해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암각화에 새겨진 원시 히브리어도 해석할 수 있었다.

약 3천 5백년 전에 사용된 고대문자

가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산(Mt. Sinai: Mt. Lawz) 주변의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데, 그 고대문자가 고조선 수막새의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고조선 백성의 후예인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가운데 ‘단지와’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태선 기자

본지 8면 [암각화 특집] 참조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3)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극치의 선한 마음이며 아름다운 마음이다.

극치의 아름다운 마음, 극치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영이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뜨거운 불이 오고 시원한 것이 느껴져야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노년행복설계하기 노인의 고독 소외

흔히 노년기는 24시간이 다 여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쉬고 싶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고, 놀기 싫어도 노는 일 밖에는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고독한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연구자료에 의하면 사회에서의 은퇴와 더불어 변화되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역할상실, 노쇠에 따른 심정의 악화, 배우자·친지 등과의 사별에서 오는 슬픔과 고립감,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감 등에서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홀대하기 쉽고, 아랫사람들에게 책망(責望)하기 쉽지만, 행복한 노년을 위해선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곧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인정(認定)해 주고, 존중해 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노년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노후의 3대 조건으로 건강과 돈 그리고 봉사(奉仕)할 거리를 꼽았습니다. 여기다 덧붙인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 고독과 소외는 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봉사적인 자세로 삶을 살면 그 누가 싫어하고 기피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를 불문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육체적인 활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행복감을 찾으며,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自信感)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원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조성준 대리는 “임주자끼리 모임을 만들어 같이

운동하고 미술관이나 음악회에 가는 일도 흔하다. 은퇴했다고 사회와 동떨어져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요즘 어르신들의 특징”이라며 “그 덕분에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건강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워드 프리드먼 교수와 레슬리 마틴 교수가 함께 펴낸 책 ‘나는 몇 살까지 살까?’(The Longevity Project)에 따르면 젊은 시절 덜 활동적이었지만, 이후 활동성이 증가해 노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체육관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일본의 경우, 70대의 체력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친구처럼 여기고 자주 만나 담소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맛있는 노년의 삶이 되겠습니까!!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좋은 집보다는 아마도 사람 냄새가 물씬나는 곳,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 함께 걸어가는 친구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혼자 돌봄정권처럼 살면,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년에도 일과 운동, 사회적 관계 맺음을 중단하지 않는 지금의 80, 90대가 머잖아 ‘100세 현역’이 되면 장수에 대한 부정적 공포도 사라지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김주호 기자

6월 성적 1등 4지역

개인 1등 강춘희 권사



지역 이명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 지회장: 이명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2지역(지역장: 서보목,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33구역(구역장: 박순희) 2등: 31구역(구역장: 박옥례) 3등: 53구역(구역장: 석선자)

2019년 7월 9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2019년 6월 성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개인 1등: 강춘희 권사 2등: 안향자 권사 3등: 박순희 권사*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